

러시아의 언어 정책과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문자 도입*

어 건 주**

목 차

- 서 론
- 러시아의 언어 정책과 시베리아 소수민족 문자
- 결 론

국문요약

언어 정책이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 구성원들을 삶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다민족 국가에서의 언어 정책은 국가 구성 민족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국가의 단일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러시아의 언어 정책은 지도자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 민족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레닌 시기에는 각 민족의 언어 독립성 또한 강조되었다. 이후 다양한 민족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 즉 소비에트 민족의 건설을 목표로 하던 스탈린, 흐루쇼프, 브레즈네프의 시기에 이르러 러시아어는 소비에트 문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 간 결속력을 다지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소비에트 시기 내내 러시아어 - 민족어의 이중 언어 단계를 거쳐 궁극적인 언어동화로 이끌려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어 구사자들은 러시아식 소비에트의 하부구조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는 러시아인들이 해당 거주지역의 민족어를 익혀서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레닌의 토착화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소련 시기 및 러시아의 언어정책은 실질적으로 그 체제가 다언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언어 사용을 지지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는 동화정책 위주로 진행되었다. 동시에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의 보존정책도 실행되었으나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한 상황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 A02102950)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I. 서론

언어는 해당 화자 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언어 사용자의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언어이념은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일종의 믿음이다. 언어이념은 많은 경우 공식적 언어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는 언어 사용 문제에 대한 개입이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언어 정책 역시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민족이든 고유의 민족문화와 전통을 유지, 발전시킴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는 민족 고유의 언어라고 본다. 언어는 민족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한 민족의 집단적인 언어동화는 그 집단의 사회문화적 동화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여겨져 왔다. 즉 민족어를 통해서 한 민족 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 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승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족어를 어느 정도 잘 아느냐는 민족 문화와 정체성이 세대 간에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다민족 국가의 언어정책은 그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의 삶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언어정책의 방향에 따라 각 민족의 언어와 문화 발전뿐 아니라, 민족의 존속 유지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II. 러시아의 언어 정책과 시베리아 소수민족 문자

국가의 언어 정책이란 언어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인 행위로서, 민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조절하는 행위이고, 어느 정도는 특정 언어의 기능을 조절하는 행위이다. 합리적인 언어 정책은 민족의 언어생활을 조절하고, 그 언어생활을 민족이 지향하는 바와 부합하는 문명화의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¹⁾

인종적, 언어적 다양성을 가진 모든 국가에서는 두 가지 경향을 실현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하다. 한 가지 추세는 국가와 국가의 언어적 통일성이

1) V.Ju. 미할첸코, G.D. 매키넬, 『러시아 연방의 절멸 위기 알타이 언어』,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 최문정 번역 (경기: 태학사, 2013), p. 26.

다. 이러한 경향은 물질적, 정신적 가치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한 실제 생활로 인해 발생한다. 또 다른 추세는 자국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열망이다. 성공적이고 갈등 없는 언어 정책은 이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을 고려하여 언어에 대한 사회의 의식적 영향력의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²⁾

1917년 혁명 이후 현재까지 소련 및 러시아 정부가 시행한 언어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혁명 직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이다. 이 시기는 국가가 제 민족 언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킨 시기로서, 문자가 없던 많은 민족이 문자를 가지게 되었고 민족어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러시아어는 국가 유일의 공용어 지위를 내려놓았으며, 제 민족들은 민족어와 러시아어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두 번째 시기는 193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이다. 이때는 국가가 러시아어 중심의 언어 동화정책을 펼치면서 민족들의 언어 발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소수민족 언어 교육이 위축되던 시기이다. 1938년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러시아어 의무 교육 선언’을 입안하여 2차 대전 이후 본격 시행에 들어갔고, 강력한 동화 정책에 따라 학교에서 러시아어가 소수 민족 언어를 대체하게 되었다.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소수 민족 출신은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많은 소수 민족 지역에서는 소수민족 언어를 폐지하고 러시아어로 대체함에 따라 소수 언어는 선택 과목으로 점차 위상이 격하되었다.

1950년대 이후 소수민족어를 배제하고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강하게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소련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언어 정책에 있어서는 러시아어 중심주의를,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에트인’으로의 통합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에 따라 다양한 민족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민족어나 타민족의 언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다양한 민족 구성원들이 러시아어를 자신의 모어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그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민족학교의 쇠퇴도 초래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 1991년 ‘러시아

2) В.Ю. Михальченко, *Язык и общество* (М.: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Азбуковник», 2016), с. 13.

연방 제 민족의 언어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 법령은 러시아인이라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하되 민족어를 자유롭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각 공화국들이 자체 권한을 통해 공화국 공용어를 지정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이 시기의 언어 정책의 큰 흐름은 1991년 소련 해체 시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 러시아의 언어 정책

1) 사회주의 혁명에서 1930년대까지

1923년 12차 당 대회에서는 기본적인 '토착화(коренизация)' 정책이 수립되었는데, 기본 이념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반에서 소련 제 민족의 민족적 편견 극복과 제 민족의 평등이었다. 실제로 이 정책은 언어 면에서 토착 주도민족 언어에 공식어의 지위 부여, 표기 체계와 표준어의 제정, 모어로의 초등교육과 공공업무 전환으로 구현되었다.³⁾

토착화 정책을 펼쳤던 소비에트 정권 초기는 비러시아 민족의 언어 교육 평등이 보장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에서는 문맹퇴치 운동과 문자 개혁이 실시되었다. 혁명 직후인 1918년에는 민족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조직됐으며, 1926년에는 각 민족공화국 내 학교에서 민족어 교육이 중등교육과정까지 진행됐다. 문자 역시 키릴 문자 외에도 라틴 문자, 아랍 문자, 몽골 문자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⁴⁾

레닌은 언어 문제에 있어 민족 언어의 독립성 확보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민족들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민족어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법률 제정에 있어서도 해당 민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가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민족 문제의 모범적 해결로 예를 든 국가는 스위스였다. 그는 스위스에는 3개의 공용어가 있고, 또 주민투표의 용지는 5개의 언어로 인쇄되고, 그 가운데 두 언어(로마 사투리)를 말하는 사람은 총인구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스위스 연방 의회에서 이탈리아계 대표가 자주 프랑스어를 말한다는 사실에 열광했다.⁵⁾

3) 정경택, “소수민족에 대한 소련의 언어정책,” 『슬라브연구』, 제28권 4호 (2012), p. 35.

4) 김혜진, “러시아 내 공화국의 토착민족어 복원 노력과 실제,” 『슬라브학보』, 제30권 4호 (2015) p.103.

10월 혁명 직후 레닌은 ‘러시아 민족들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공포하였다: 1) 러시아 모든 민족의 평등과 주권; 2) 분리와 독립국가 결성을 포함하는 러시아 제 민족들의 자유로운 자결권; 3) 모든 민족적 그리고 민족 종교적 특권과 제한의 폐지; 4) 러시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과 민족 그룹의 자유로운 발전.

레닌의 이러한 원칙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념만으로 다민족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민중을 혁명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레닌은 소수민족의 ‘민족자결권’이라는 현실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서 러시아의 소수민족들을 혁명 대열에 동참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레닌의 언어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첫째, 소수민족의 구어를 문어로 정착시키고 표기 수단으로는 라틴 알파벳을 차용한다. 둘째, 민족 지역에서의 교육은 해당 민족 언어로 실시한다. 셋째, 모든 민족어는 동등한 지위를 갖고 각 민족 지역 안에서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⁶⁾ 레닌은 다민족 국가의 가장 중요한 변영 요인으로서 언어의 평등 확립 필요성을 주창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의 구축을 위한 레닌의 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2) 193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레닌 사후 민족 언어의 독립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이미 1930년 스탈린에 의해 언급되었다. 1930년 제16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은 “모든 민족문화는 발전하고 확장되고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는 단일 언어에 기초한 단일 공통문화로 수렴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언어가 평등하다는 언어정책에서 탈피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제 민족 간 경제, 정치, 문화적 협력을 위한 공통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면에 부각시켰다.⁷⁾

소비에트 정부 초기 레닌의 이념을 따라 모든 민족의 언어와 교육 평등을 보장한 토착화 정책이 진행되었으나 그러한 정책은 스탈린 정부 시기부터

5) 보흐단 나할일로, 빅토르 스보보다, 『러시아 민족문제의 역사』, 정옥경 역, (서울: 신아사, 2008), p. 27.

6) 허승철, “소련의 언어정책과 언어민족주의,” 『러시아소비에트문학』, 3권 (1992), p. 146.

7) 남혜현, “소비에트와 러시아연방의 민족어 정책 고찰,” 『유럽사회와 문화』, 제14호 (2015), p. 175.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러시아 우월주의를 신봉한 스탈린은 강압적이고 급진적으로 대 소수민족 러시아 동화정책을 펼쳐나갔다. 언어정책에 있어서 스탈린은 레닌이 표방한 “민족의 형식은 유지하되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 동질화 하자”는 진보주의적 정책을 뒤집고, 제 민족의 문화는 단일 언어권의 단일문화로 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1938년 3월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어는 모든 비 러시아 학교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레닌이 주창한 모든 언어에 대한 평등이념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⁸⁾

1938년 소비에트 정부가 러시아어를 소련 내 모든 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이래, 소비에트 시기 내내 러시아어 중심의 정책이 진행됐으며, 민족어 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러시아어가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면서, 많은 비러시아계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했다. 러시아어로의 동화정책은 꽤 성공적이었고, 많은 토착민족들이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반대로 각각의 민족어는 토착민족 사회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⁹⁾ 그에 비해 러시아어의 지위는 강화되었다. 러시아어에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부여되었고 실질적인 국어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1950년대 스탈린 사후, 언어 정책에 있어서 러시아화가 완화되자, 비러시아 민족들은 교육과 공적생활에서 자신들의 현지 언어를 회복하고자 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러시아어로의 언어 동화 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러시아어가 소련 사회의 중심 언어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이 시기 러시아어는 민족 간 소통어로서의 역할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일한 국가 공식어로 기능하고, 일차적인 교육 목표어이자 교육 매개어가 되었다. 러시아어는 점차 소수민족어에 대하여 권위를 갖는 상위어, 사회의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는 상부어로, 그리고 소수 민족어는 사용 영역이 급격히 축소되며 노년층 언어나 변방어로 인식되었다. 소수 민족들은 러시아어를 습득하고 러시아 문화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민족어와 문화를 홀대하고 배척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전통적으로 소수 민족어가 기능하였던 영역에서도

8) 성종환, “러시아 지역경제성 연구방법,” 『슬라브연구』, 제19권, 1호 (2003), p. 6.

9)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편, 『시베리아 근대성과 소수민족 담론: 시베리아 이야기 2』, (서울: 민속원, 2017), p. 225.

이제는 러시아어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리하여 막 형성되려던 소수 민족어-러시아어 이중 언어 상황이 와해되고, 러시아어 유일어 상황으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¹⁰⁾

흐루쇼프와 브레즈네프 통치시기에 소련 정부는 소수민족들의 러시아 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브레즈네프는 모든 민족을 ‘소비에트인’이라는 개념으로 융합하고, 단일민족화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소수민족들의 언어동화를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어는 ‘소비에트인’의 언어로 찬양되고, 연방 각 공화국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한층 강화시켰다.¹¹⁾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러시아 문화와 러시아어에 동화되었다. 자신의 민족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모어를 생각하는 비율은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59년 북부 토착민족의 15%만이 러시아어를 모어로 생각했다면, 그 비율은 점점 높아져, 1970년에는 23%, 1979년에는 29%, 1989년에는 36%에 달했다.¹²⁾ 러시아어 동화정책이 성공하면서 소수민족의 모어 유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민족어는 토착민족 사회에서 점점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3) 1990년대 이후

소수민족들이 민족어가 아닌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여기는 비율이 증가했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의 공용어인 러시아어가 가지는 사회-경제적인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어가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면서, 많은 비러시아계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어를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최근 들어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소수민족 언어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든지, 문자를 제정하고 일부 소수민족 언어를 교육매개어로 사용하는 등 소수민족 언어의 복원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련의 민족 및 민족어 문제는 좀 더 복잡한

10) 김용화, 백용식, 최성호, “러시아 알타이 지역의 소수 민족어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3집 (2010), p. 142.

11) 성종환, *op. cit.*, p. 6.

12) 김혜진, *op. cit.*, (2012), p. 68.

상황에 처하게 된다. 1989년 고르바초프는 스탈린 시대의 소수민족 강제이주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와 권리는 법에 의해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1991년에는 압박받았던 소수민족들이 정치적 독립과 사회·문화적 자치권을 회복하게 되어, 민족어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럽게 고조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민족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하공화국에서는 1990년 ‘야쿠트-사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주권선언’에서 러시아어와 야쿠트어, 그리고 기타 소수민족어들의 법적인 지위를 선언하였다. 3조에서 러시아어와 야쿠트어를 공화국의 국가어(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язык)로, 4조에서는 소수민족어를 소수민족 밀집지역의 공식언어(официальный язык)로 선언함으로써 소수민족어들에게도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르바초프는 1990년 “소련방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통해 민족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면서, 모든 국가기관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민족어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민족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족어의 부흥, 보존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 민족어의 자유로운 발전과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령은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 내부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점차 증가해가는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즉, 소련으로부터 공화국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언어 부분의 조치였다고 여겨진다.

비록 이 법령이 민족 언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어의 우월성 또한 보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령에는 제 민족 언어의 법적 지위와 자유로운 사용, 부활, 유지, 발전이 보장되어 있지만, 러시아어가 여전히 국어에 상당하는 공식어이고 민족 간 의사소통 언어임을 규정하는 등 모순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러시아연방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이는 이중성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즉,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제 민족들의 민족어 사용과 교육, 발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단일한 공용어로서 러시아어의 사용을 강요하고¹³⁾ 있는 것이다.

13) 남혜현, *op. cit.*, p. 188.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 정부는 제 민족의 언어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러시아연방은 헌법 제68조 1항에서 러시아어를 연방의 국어로 규정했고, 제2항에서 연방 소속 공화국이 러시아어 이외의 국어를 지정할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언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들에서 연방 국어와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 내 민족공화국들은 공화국 헌법과 공화국의 ‘제 민족 언어에 관한 법률’을 통해 러시아어와 더불어 명목 민족어를 공화국의 국어로 지정하여 민족어를 부흥시키고자 했다.¹⁴⁾

1993년 12월 옐친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연방헌법은 과거 소련의 헌법에 서와는 달리 “러시아연방의 국어는 러시아어이며, 이는 러시아연방 전역에 적용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러시아어의 우월성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각 공화국은 고유의 국어를 채택할 권리를 가지며, 각 공화국 국어는 연방 및 공화국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러시아연방 국어와 함께 사용된다.”라는 조항과 “모든 국민은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사소통 언어 및 양육언어, 교육 및 창조활동에 필요한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통해 각 공화국의 국어 채택 및 모든 활동 분야에서의 언어 선택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1998년 7월 제정된 “러시아연방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은 민족 언어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법령의 전문(러시아연방 내에 거주하는 제 민족의 언어는 러시아연방의 국가자산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민족어와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의 발전을 촉진한다; 본 법령은 러시아연방 제 민족어의 보존과 균등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다.)과 각 조항(연방 각 공화국은 러시아 연방헌법에 따라 독자적인 국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 각 주체는 본 법령에 따라 국민들의 의사소통, 양육, 교육 및 창작활동에 필요한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규범을 채택할 수 있다 등.)에서 민족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000년대 들면서 러시아 정부는 소수민족의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령으로 1999년 제정된 ‘러시아 연방 토착

14) 김민수, “러시아연방 부랴트공화국 언어정책과 언어상황,” 『국제지역연구』, 제16권 4호 (2013), p. 86.

소수민족의 권리보장법(Закон о гарантии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РФ)과 2001년 제정된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극동 내 토착 소수민족의 전통자연이용영토법’(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에 반영된 소수민족 언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수민족들의 민족어, 민족문화, 민족대중매체 발전에 대해 지원한다; 국가교육표준에 민족·지역적 요소를 도입한다; 소수민족에 대한 학술연구를 지원한다; 소수민족들의 고등교육기관 및 중등특별교육기관 입학에 있어 일정 혜택을 제공한다.¹⁵⁾

2005년 제정된 러시아연방 국어법에서는 공공영역 내에서의 러시아어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어와 다른 언어를 병기할 경우 두 언어로 된 텍스트의 내용이나 기술적인 면의 일치가 의무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교과서에는 반드시 러시아어만을 사용하고 학교 내의 교육에 있어서도 러시아어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베리아 소수민족 문자 체계의 변화

러시아는 180여 개의 민족을 가진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이다. 그러나 1억 4천만 명 가량의 전체 인구 중 러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른다. 그 나머지 20%를 다양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소수민족들의 수는 약 63개이다. 극북 지역과 시베리아에 20여 개 민족, 캅카스에 30여 개 민족이 분포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내에는 150개 이상의 언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민족 국가이다. 다민족 국가의 언어적 통합의 수단은 러시아 연방의 국어인 러시아어이다. 러시아 연방의 언어적 통합 수준은 매우 높다. 인구의 98.2퍼센트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인구의 23퍼센트가 38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인구의 1퍼센트만이 나머지 114개의 언어를 사용한다.¹⁶⁾

언어 사용자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문자의 존재는 해당 언어 상황의 개선에

15) 김해진, op. cit., (2015), p. 61.

16) В.Ю. Михальченко, там же., с. 5.

기여할 수 있다. 문자가 언어 보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어는 텍스트, 문학 작품, 구전 문학 등의 기록을 가능하게 하는 문어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베리아 민족어의 대부분은 문자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자들은 키릴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비슬라브어 계열 언어의 문자 창제에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 해당 언어에는 있으나 러시아어에는 없는 음운을 표기하기 위해 민족어의 음성구조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키릴문자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처음부터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문자들이 키릴 문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소비에트 초기 소련 지역 언어들의 문자 체계는 매우 다양하였다. 문자 체계 형식에 따라 당시 언어들은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문자가 없는 언어,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 아랍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 몽골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부랴트어와 칼미크어), 기타(중국어 사용하는 일부 지역과 이미 고유한 전통문자를 보유하고 있던 그루지아와 아르메니아 등) 언어로 분류된다.

소비에트 초기 1930년대 자신의 문자를 가지지 못한 소수민족들의 문자 창제 과정이 발생했다.¹⁷⁾ 1930년대 초까지 문자가 없었거나 다른 문자에 기반을 둔 문자를 가진 소련의 여타 민족들(부랴트, 칼미크 등) 대부분이 라틴문자로 전환되었다. 1931년 아랍문자의 라틴 문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자 문자를 갖지 못한 북방, 캅카스, 중앙아시아 등의 소수민족에게도 표기체가 갖추어지게 되었는데, 이중에서 1930년대에 제정된 시베리아와 소련의 극북민족어, 즉 북방민족의 라틴 기반 표기체가 바로 단일북방문자(ЕСА; Единый северный алфавит)이다.

당시 소련 내 언어들은 표기체계가 달랐는데,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그루지아어, 아르메니아어는 각기 발전되고 해당 언어에 맞는 표기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타타르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우즈베크어, 투르크멘어, 타지크어, 아제리어는 투르크 어파에는 잘 맞지 않는, 셈어의 특징을 반영하는 아랍문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또한, 야쿠트어와 추바쉬어 같은 몇몇 소수민족은 러시아 제국 시기에 이미 러시아 키릴문자에 기반을 둔 문자를 가지고

17) 19세기에도 주로 정교회 사제들에 의해 일부 시베리아 언어를 위한 문자를 만들려는 시도가 반복되었으며, 키릴 문자가 기본 알파벳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야쿠트, 알타이, 쇼르, 알류트 언어를 위해 개발된 문자 체계는 실제로 작동했고, 이 언어들로 성서 번역본이 인쇄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표기 음성 자체도 제한적이었다.

있었지만, 그 외 러시아의 약 50개 민족, 특히 모든 북방민족은 표기체계가 없었다.¹⁸⁾

때문에 소비에트 정부는 다음의 이유로 라틴문자 기반의 표기체 제정과 라틴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¹⁹⁾

첫째, 라틴화는 민족문제 해결방안들 중 하나로 인식되었고, 토착화 정책에 전혀 위배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혁명 초기(1918-1924년) 연방정부가 지역어 지위의 기능 확장, 지위향상 조치를 취하고 이와 반대로 단일한 범연방 언어로서 러시아어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지역어들에 맞는 표기체 제정이 필요했다.

둘째, 라틴화는, 거대하지만 한 국가의 수많은 민족들의 접근, 통합을 지원하고 외부세력(터키 중심의 이슬람)을 차단해 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라틴화는 모든 소비에트 민족을 언어와 문화적 관계에서 유사한 모든 비소비에트 민족으로부터 분리하고 단절시켜줄 수 있었는데, 이는 공산당 정부의 정치적 목표에 합당한 것이었다.

셋째, 공산당 지도부는 아주 오랜 동안 10월 혁명을 세계혁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신중하게 기대하고 이를 준비했다.

넷째, 이념적인 원인으로 당시 공개적인 대 종교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여기서 라틴화가 극히 적절한 것이었다. 이 개혁은 가장 먼저 포볼지예(Поволжье), 중앙아시아, 캅카스의 투르크 제 민족과 타지크인에게서 추진되었다. 라틴화는 바로 아랍문자의 지위, 이의 교육 및 확장과 관련된 이슬람, 이슬람 성직자들, 그리고 제도 격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쇄술과 교육 부문에서 라틴화가 기술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여러 언어의 고유한 음성적 구조를 개혁된 아랍문자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표기체 가운데 아랍 문자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키릴 문자는 러시아제국의 문자라는 이유로 배제 되었다. 투르크 민족들과 북방민족들은 러시아제국의 식민주의와 정교회 선교사의 러시아어 성경 강요에 대한 적대감을 지니고 있었다. 키릴 문자는 즉 민족적 박해를 상징하였다.

1936~1941년 당시 사용되던 모든 시베리아 문자는 라틴 문자에서 키릴

18) 정경택, *op. cit.*, (2012), p. 37.

19) 정경택, “소비에트 표기체 제정 역사 고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7집 (2019), p. 156.

문자로 변환되었다. 1935년 6월 소련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가 단일북방문자를 폐기하고 키릴문자로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²⁰⁾ 이때 키릴 문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존재하던 기존 문자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텔멘어와 우데게어는 기존의 문자를 상실하였고, 쇼르어와 셀쿠프어는 1940~1950년대에 (이미 키릴 문자화된) 문자를 상실했다.

라틴문자를 키릴문자로 대체한 이유는 먼저 러시아어 교육이 강제되면서 배우게 되는 러시아어 키릴문자와 기존의 라틴문자의 혼동을 방지한다는 교육적 명목이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 공산화가 난망하고 당분간 소련이라는 단일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방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련 내부의 단결과 통일이 필요한데, 이 중 한 조치가 표기체의 통일이라는 것이었다. 즉 키릴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러시아어 발음과 정자법 규칙이 여러 민족어에 스며들어 가고 많은 수의 러시아어 어휘가 민족어들에 유입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²¹⁾

1970-90년대에 다시 한 번 시베리아의 소수 민족들의 문자 체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이텔멘, 셀쿠프, 우데게어, 쇼르 및 알류트어(학교 사전과 교사 매뉴얼이 알류트어로 출판된 후 새로 발견된 문자 사용이 중단됨)에 대한 문자 체계가 재개정되었고, 처음으로 돌간, 느가나산, 네기달, 케트, 오로크, 오로치, 토팔라르, 울치 및 유카기르어를 위해 문자체계가 만들어졌다.

Ⅲ. 결 론

러시아의 언어 정책은 지도자의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 민족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레닌 시기에는 각 민족의 언어 독립성 또한 강조되었다. 이후 다양한 민족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민족, 즉 소비에트

20) 1935년 ‘북방 제 민족의 키릴 문자 전환 법령’(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ереводе на кириллицу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езидиума ЦИК СССР от 1 июня 1935 года)에 따라 북방 제 민족 언어 표기체의 키릴 문자로의 전환이 결정되었다.

21) 정경택, op. cit., (2012), p. 42.

민족의 건설을 목표로 하던 스탈린, 흐루쇼프, 브레즈네프의 시기에 이르러 러시아어는 소비에트 문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 간 결속력을 다지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소비에트 시기 내내 러시아어 - 민족어의 이중 언어 단계를 거쳐 궁극적인 언어동화로 이끌려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어 구사자들은 러시아식 소비에트의 하부구조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는 러시아인들이 해당 거주 지역의 민족어를 익혀서 이중 언어 구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레닌의 토착화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소련 시기 및 러시아의 언어정책은 실질적으로 그 체제가 다언어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언어 사용을 지지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는 동화정책과 의식적, 인공적 언어 순화를 강조하는 언어순수성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의 보존정책도 실행되었으나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한 상황이다. 현재 소수 민족 출신들은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과제와 만나고 있다. 주류 문화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주류 언어를 습득해야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소수 민족 언어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수. “러시아연방 부랴트공화국 언어정책과 언어상황.” 『국제지역연구』, 제16권, 4호, 2013.
- 김용화, 백용식, 최성호. “러시아 알타이 지역의 소수 민족어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33집, 2010.
- 김혜진. “러시아의 소수민족 정책과 한계.” 『국제지역연구』, 제16권, 1호, 2012.
- _____. “러시아 내 공화국의 토착민족어 복원 노력과 실제.” 『슬라브학보』, 제30권, 4호, 2015.
- 남혜현. “소비에트와 러시아연방의 민족어 정책 고찰.” 『유럽사회와 문화』, 제14호, 2015.
- 미할첸코, V.Ju. 매코널 G.D. 『러시아 연방의 절멸 위기 알타이 언어』,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 최문정 편역, 경기: 태학사, 2013.
- 나할일로, 보흐단 스보보다, 빅토르. 『러시아 민족문제의 역사』, 정옥경 역, 서울: 신아사, 2008.
- 성종환. “러시아 지역정체성 연구방법.” 『슬라브연구』, 제19권, 1호, 2003.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편. 『시베리아 근대성과 소수민족 담론: 시베리아 이야기 2』, 서울: 민속원, 2017.
- 정경택. “소수민족에 대한 소련의 언어정책.” 『슬라브연구』, 제28권, 4호, 2012.
- _____. “소비에트 표기체 제정 역사 고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7집, 2019.
- 허승철. “소련의 언어정책과 언어민족주의.” 『러시아소비에트문학』, 3권, 1992.
- Михальченко, В.Ю. *Язык и общество*, М.: Издательский центр «Азбуковник», 2016.

Abstract

Russia's Language Policy and Lettering of Siberian Ethnic Minorities

Keonjoo Eo

As a symbol of identity, the Russian language was perceived as an effective accelerator for consolidating Soviet culture and building interethnic cohesion during the period of Stalin, Khrushchev, and Brezhnev, who aimed to build a single super-ethnic, super-race, Soviet nation that would unite diverse peoples. Thus, throughout the Soviet period, the policy of pushing Russian – ethnic languages through the bilingual stage to eventual language assimilation was steadily pursued.

Thus, ethnic language speakers were expected to become bilingual in order to integrate into the Russian-style Soviet infrastructure, in direct opposition to Lenin's indigenization policy, which called for Russians to become bilingual by learning the ethnic language of their region of residence.

Language policy during the Soviet period and in Russia has been characterized by an ongoing struggle for linguistic purity, which emphasizes both conscious and artificial language purity, and assimilation, which promotes national unity by supporting monolingualism, despite the fact that the system is actually a multilingual society.